

慶州 錫杖寺址 塼佛 研究

김 지 현*

- I. 머리말
- II. 전불의 현황과 유형
- III. 전불의 제작시기 재검토
- IV. 탑상문전의 형식과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의 연원
- V. 맺음말

I. 머리말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에 위치한 錫杖寺址는 신라의 조각승 良志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현재 절터의 흔적만 남아 있다. 석장사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 의해 1986년과 1992년 2차에 걸쳐 발굴·조사되었다. 당시 발견된 유물 중 조선시대 자기 굽 바닥에 묵서된 '錫杖'이라는 글자를 통해 『三國遺事』 권제4 義解 제5 良志使錫條에 등장하는 寺刹임을 확인하였고 전탑의 부재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塼佛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탑지가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전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塔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동아대학교 시간강사

像紋博은 양지가 조성했다는 전탑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물로 사료된다. 이는 석장사지에서 발견된 탑상문전과 같은 형식의 부재로 구성된 통일신라 전탑인 경상북도 청도 불령사 전탑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석장사지에서 발견된 전불에는 다양한 수인을 가진 불상과 탑이 새겨진 탑상문전, 일부 博片에 새겨진 여러 종류의 도상들 그리고 전에 새겨진 연기범송을 비롯한 방위를 나타내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대 전불 연구, 나아가서 고대 조각상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석장사지와 관련한 연구는 1994년 『錫杖寺址』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주로 문헌자료와의 비교 및 양지라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편으로 작품 그 자체의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한 미술사적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전불의 제작시기는 양지의 활동시기에 따른 7세기 후반으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¹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탑은 그 특성상 석탑과 목탑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며, 탑 자체가 훼손되기 쉽고, 이후 보수 될 가능성이 높다. 석장사지 전불 역시 처음 조성된 7세기 후반의 작품과 더불어 후대에 제작된 전불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전불에 새겨진 다양한 도상들의 형식 및 양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작시기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7세기 후반 전탑의 창건시기로 판단되는 유물을 통해 석장사지 전불 형식의 연원과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석장사지 전불이 지닌 고대 조각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²

¹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錫杖寺址』(1994); 강우방, 「신양지론-양지의 활동기와 작품세계」, 『미술자료』 47(1991)(『法空과 莊嚴』(열화당, 2000), pp. 147-163에 재수록);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 고찰」, 『문화사학』 25(2006); 문명대, 「양지와 그의 작품론」, 『불교미술』 1(1973); _____, 「신라 대조각장 양지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미술사학연구』 232(2001)(『신라조각장 양지론』, 『원음과 적조미: 통일신라불교조각사 연구(下)』(예경, 2003), pp. 13-48에 재수록); _____, 「통일신라의 소조상」, 『원음과 적조미: 통일신라불교조각사 연구(下)』(예경, 2003); 신종원, 「삼국유사 양지사석조 주석」, 『고문화』 40·41(1992); 장충식, 「석장사지 출토유물과 석장사지의 조각유품」, 『신라문화』 3-4(1987)(『한국불교미술 연구』(2004), pp. 55-72에 재수록); 황패강, 「풍요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7집(1986) 등.

² 본고에서 사용한 전불은 博에 새겨진 불교와 관련된 모든 도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II. 전불의 현황과 유형

1. 전불의 현황

1986년과 1992년 2차에 걸쳐 석장사지를 발굴한 결과 전의 측면에 탑과 불상이 새겨진 탑상문전과 편이 282점, 緣起法頌이 새겨진 연기법송명탑상문전편 8점, 쌍록보상화문이 새겨진 전편 2점, 벽전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부상이 새겨진 전편(이하 천부상전편) 28점, 기타 3점으로 합계 약 323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전불이 출토되었다.³ 간혹 신라시대 유적에서 전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석장사지처럼 다량으로 출토된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가장 많이 출토된 탑상문전은 장방형의 전 측면에 탑과 불상이 각각 4구씩 번갈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부조되었다(도 1). 42cm×24.8cm×6.0cm 크기의 완형 전도 발견되었지만 부서진 片이 대부분이다. 탑과 불상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는데 탑은 목탑형, 전탑형 그리고 석탑형, 불상은 착의, 수인, 연화대좌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282점 중 18점은 전의 上面 또는 下面에 음각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도 2). 명문은 주로 “西北”, “東”, “下



도 1 석장사지 탑상문전, 8세기 중반-9세기 전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도 2 석장사지 탑상문전, 7세기 후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³ 석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의 소조부조상편에 해당하며 신장상이라 표현하였다. 하지만 불자로 추정되는 일부 전편과 함께 도상 파악이 불명확한 가슴 부위의 전편 등으로 인해 사천왕상을 포함한 신장상과 함께 제석, 범천의 도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천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도 3 석장사지 연기법송명탑상문전, 8세기 중반 이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도 4 석장사지 천부상전편(사천왕상), 7세기 후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層南”, “西仲上” 등 방위를 표현하는 글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僧”, “官長” 등의 명칭도 확인된다.⁴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완형이 없이 모두 편으로 그중 가장 큰 것은 17.5cm×14.0cm×6.5cm이다(도 3). 전의 한 면은 장방형으로 구획을 긋고 그 내부에 불상과 탑을 얇게 음각하였다. 상단에 5구씩 2열로 총 10구의 불상과 함께 3열과 4열에 각각 5기씩 총 10기의 탑을 배치하였다. 탑 사이에는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의 연기법송을 4자씩 縱書로 음각하였는데, 左書로 뒤집혀 음각된 점이 특징이다.⁵ 이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지금까지 양지 조각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단서로서 7세기경 연기법송이 탑 내 범사리로 봉안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알려졌다.⁶

천부상전편은 전에 천부상으로 추정되는 도상을 표현한 것으로 28점 모두 편으로 발견되어 명확한 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도 4).⁷ 다만 편에 보이는 모티프를 통해 도상적 특징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탑을 들고 있는 사천왕상의 가슴 부분, 금강역사상의 발로 추정되는 편, 금강역사상의 얼굴 편, 악귀의 발, 불자, 깃발, 사자상, 신장상의 하부

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錫杖寺址』(1994), p. 50; 장충식, 「석장사지 출토유물과 석장사지의 조각유품」, 『신라문화』 3-4(1987), pp. 95-96.

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앞의 책, p. 47; 장충식, 앞의 논문, p. 95.

⁶ 장충식, 『신라석탑연구』(일지사, 1987), p. 58.

⁷ 보고서에 기록된 천부상전편은 총 26점이 발견되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신장상 하부편과 금강역사상 얼굴 편까지 더하여 28점(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앞의 책, pp. 47-63).



도 5 석장사지 쌍록보상화문전, 통일신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등 대략적인 도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천부상전편들은 앞서 언급한 탑상문전과는 도상 뿐만이 아니라 전의 크기도 다르다. 뒷면이 편평하여 벽면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탑 표면을 장식한 壁博일 가능성이 농후하다.⁸

쌍록보상화문전 2점은 위의 두 전과 다르게 측면 뿐만 아니라 전의 상면에도 문양이 관찰되어 탑부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도 5). 이와 비견되는 유물로 안압지에서 출토된 調露 2年(680)銘 쌍록보상화문전이 있는데 당초보상화문과 사슴으로 구성된 형식이 유사하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쌍록보상화문전은 바닥에 깔았던 전돌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석장사지 쌍록보상화문전 역시 이와 비슷한 용도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전불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양지가 조성하였다는 탑과 관련된 전불은 모두 약 318점으로 탑상문전, 연기법송명탑상문전 그리고 천부상전편으로 분류된다. 318점 중 특히 유형분류가 가능한 282점의 탑상문전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2. 탑상문전의 유형분류




약 282점의 탑상문전은 전술하였듯이 탑 조성과의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형태와 크기 등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용도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장방형의 전 측면에 불상과 탑을 새긴 탑상문전, 뒷면이 편평하며 천부상을 새긴 전편류 마지막으로 상단에는 불상을 하단에는 탑을 표현하였으며 탑과 탑 사이에 연기법송을 새긴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이 그것이다.

⁸ 장충식, 앞의 논문, p. 65.

삽도 1 석장사지 전불의 유형분류

탑상문전			천부상전편	연기법송명 탑상문전
I	II	III		
				

삽도 2 탑상문전 불상의 두광

유형 두광	I	II	III
보주형			
원형			

이 중 탑상문전은 표면에 조각한 표현기법과 불상 및 탑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구성에 따라 I, II, III 유형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I유형의 불상은 다양한 수인을 보이며 탑신에 감실이 표현된 전탑형의 탑과 함께 배열되었다. 전체적으로 표현기법이 사실적이며 상세하게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II유형은 I유형과 전체적인 표현기법은 같지만 두 손을 앞으로 모은 공수 자세의 불상과 기단에 안상을 새긴 석탑형의 탑을 함께 배열하였다. 마지막으로 III유형은 다양한 수인의 불상들이 가구식 기단인 석탑형과 전축기단의 목탑형 혹은 전탑형의 탑과 함께 배열되었다. 불상의 경우 단순하고 간략하게 표현한 점이 매우 독특하다(삽도 1).

탑상문전의 불상은 광배, 수인, 착의, 대좌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광배는 모두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두광의 경우 보주형과 원형의 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I유형은 모두 보주형 두광이며, II·III 유형은 원형 두광인 점이 특징이다(삽도 2).

수인을 살펴보면 수인은 크게 7종류로 구분되는데, 공수, 선정인, 오른손은 무릎 측면을 따라 내려오며 왼손은 가슴 부위에 올린 수인(이하 설법인으로 칭함), 전법륜인, 오른손은

삽도 3 탑상문전 불상의 수인

수인 유형	공수	선정인	설법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왼손 항마촉지인
					시무외인 1	시무외인 2	
I							
II							
III							

무릎 측면을 따라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 바깥쪽에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이하 시무외인 1로 칭함)과 그 반대 수인(이하 시무외인 2로 칭함), 왼손을 항마촉지인 한 경우(이하 왼손 항마촉지인) 등이다.⁹ I유형은 7종류가 모두 나타나며 II유형은 공수, III유형은 간략화되어 명확한 수인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공수, 전법륜인, 설법인, 선정인, 왼손 항마촉지인 등 5종류로 추정된다(삽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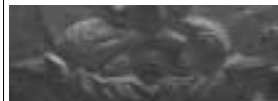

착의법은 편단우견과 통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단우견의 경우 전통적인 편단우견과 더불어 왼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좌견도 보인다. 통견은 일반적인 통견 이외 인도식 통견도 확인된다. I유형은 편단우견, 편단좌견, 인도식 통견과 통견 모두 나타나며, II유형은 통견, III유형은 인도식 통견과 통견을 착의하였다(삽도 4).

⁹ 설법인으로 칭한 수인은 오른손의 경우 무릎 측면을 따라 내려오며 왼손은 가슴 부위에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어 중품하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쪽 수인의 구성이 이와 동일한 예는 찾기 어렵다. 중국 乾封원년(666)명 삼존불상과 垂拱2년(686)명 삼존불상의 경우 양 수인의 위치가 매우 흡사한데 이들의 존명은 각각 아미타불과 미륵불로 銘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이 수인의 왼손과 같이 취하며 중생에게 설법하는 경우 설법인이라 칭하여 편의상 설법인으로 명명하였다(松原三郎, 『중국불교조각사연구』(吉川弘文館, 1966), p. 245 도판(a), p. 251 도판(a) 참조). 또한 시무외인이라 칭한 수인의 경우 손가락 모양이 한 손은 설법인과 같이 엄지와 검지를 맞닿아 둥글게 만들고 한 손은 무릎 측면에 둔 모습이다. 손의 위치가 몸의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손등의 위치가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동일한 수인을 찾기 어렵지만 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의 석가상으로 추정되는 중앙에 위치한 상의 시무외인과 유사하며, 인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방불 중 불공성취로 추정되는 항좌촉상의 시무외인과 흡사하여 이 수인 역시 시무외인으로 하였다(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의 경우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 II—서남산 사지 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1977), p. 233의 도면 참조, 인도국립박물관장의 오방불은 이주형 외 1인 『인도의 불교미술』(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p. 125, 도판 27 참조).

삽도 4 탑상문전 불상의 착의법

유형 \ 착의	편단우견		통견	
	편단우견	편단좌견	인도식 통견	통견
I				
II				
III				

삽도 5 탑상문전 불상의 연화대좌

유형 \ 착의	편단우견	통견	
	I		
II			
III			

대좌는 모두 연화대좌인데 크게 단판복련, 단판양련 그리고 양련+복련으로 구분된다. I유형은 단판복련과 양련+복련이 나타나며, II·III 유형은 단판양련만 보인다(삽도 5).

또한 I·II·III 세 유형의 탑상문전들은 두께가 조금씩 다른 점도 주목되는 특징으로 이는 탑이 채감되는 조형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탑상문전의 두께는 약 0.5cm 차이를 두며 5.0-9.0cm까지 나타나는데, 수인에 따른 불상의 종류에 따라 전의 두께도 다르다.

먼저 I유형의 경우 5.0-6.5cm 전의 두께에서 불상의 수인은 공수를 취하며, 통견에 단판복련의 대좌가 나타난다.¹⁰ 7.0-8.0cm에는 선정인, 설법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1·2, 향마촉지인 및 왼손 향마촉지인이 대부분이다. 선정인과 설법인은 편단우견과 단판복련, 전법

표 1 탑상문전의 불상, 탑, 전의 두께와의 관계

유형	전두께 (cm)	불상													탑 형태				
		두광		수인						착의				대좌					
		보주형	원형	공수	선정	설법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1	시무외인 2	왼손항마촉지	편단우견	편단좌견	인도식	통견	단판복련	복련+양련	단판양련	전탑	석탑
I	5.0-6.5	●		●									●	●			●		
	7.0-8.0	●			●	●	●	●	●	●	●	●		●	●		●		
II	8.0-9.0		●	●									●			●		●	
III	5.0-6.5		●		●	●	●						●			●	●	●	●
	7.0-8.0		●		●	●	●						●			●	●	●	●
	8.0-9.0		●	●									●			●	●	●	●

륜인과 시무외인 1·2는 인도식 통견과 양련+복련의 대좌를, 왼손 항마촉지인의 불상은 편단좌견의 모습과 양련+복련의 대좌를 가진다.

II유형의 경우는 8.0-9.0cm만 나타난다. 공수를 취하며 통견을 착의하였으며 대좌는 단판양련을 취하고 있다.

III유형의 경우는 5.0-9.0cm 전의 두께가 확인된다. 이 중 5.0-8.0cm 전의 두께에는 전법륜인, 설법인, 선정인, 왼손 항마촉지인 등 III유형에서 보이는 모든 수인이 나타나며 단판양련의 연화대좌를 가진다. 8.0-9.0cm 전의 두께에는 공수를 취하며 통견을 착의한 불상이 대좌 없이 조각되어 있다.

탑의 경우 I유형은 모두 초층탑신에 감실을 가진 삼층전탑과 배열되었으며 II유형은 기단에 안상을 가진 삼층석탑, III유형은 가구식기단의 석탑형과 전축기단의 전탑 혹은 목탑형과 배열되어 나타난다(표 1).

이와 같이 석장사지 출토 전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탑상문전은 불상과 탑의 조각수법과 양식에 따라 I·II·III의 세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전의 두께와도 관련이 있었다.

I유형은 전의 두께가 5.0-8.0cm, II유형은 8.0-9.0cm, III유형은 5.0-9.0cm의 두께로 분

¹⁰ 마모가 심하여 명확한 수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손의 위치로 보아 공수 혹은 선정인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공수로 보고자 한다.

류된다. 이는 전탑의 後補와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 장에서 전불의 제작시기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전불의 제작시기 재검토

이 장에서는 전술한 탑상문전, 천부상전편,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의 제작시기를 검토하기 위해 탑상문전은 전에 새겨진 불상의 양식 분석과 탑의 형식을 중심으로, 천부상전편은 도상에 표현된 양식적 특징은 물론 주요한 모티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불상과 탑의 양식 및 刻字된 연기법송과 경전에 기록된 연기법송의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 탑상문전

먼저 I유형의 불상은 사실적인 표현과 함께 다양한 수인을 가진 불상들이 나타난다(도 6). 불상은 보주형 두광과 원형 신광을 갖추었으며, 다리 사이에 3단으로 주름진 옷주름과 양 무릎에서 띠처럼 드리워진 U자형의 의습 표현 등이 공통점을 보인다. 높이 솟은 동그란 육계와 팽팽한 뺨, 당당한 어깨와 발달된 가슴, 다소 세장하며 잘록한 허리, 상체가 긴 신체 비례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7세기 중반 이후 中國 西安 大慈恩寺 大雁塔址 일대에서 출토된 塼佛과 비교된다(도 7). 특히 석장사지 불상의 양 무릎 중앙에 흘러내린 둥근 3단의



도 6 석장사지 탑상문전, 7세기 후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도 7 전불상, 唐,
중국 서안시문물보
호고고소 소장
(萩原哉, 「玄裝發願
“十俱胝像”考」, 『考
古與文物』 n.1 第6
期, 2003. 1, p. 63
도 5 전제)

도 8 전불상, 일본,
7세기 후반,
日本 唐招提寺 소장
(『佛像彫刻の鑑賞基
礎知識』, 至文堂,
1999, p. 100 도 110
전제).

옷주름과 측면에 U자형으로 늘어진 둥근 옷자락은 日本 唐招提寺와 京都大學 소장의 夏見廢寺의 전불이나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아미타오존압출불상의 옷주름과도 비교된다(도 8). 이 외에도 대좌 연관이 뒷면까지 조각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점도 특징적이다. 같은 형식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판불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의 상면 혹은 하면에 “西仲上”, “東”, “下層南”, “西北” 등의 방위를 표현한 글자가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도 2). 이는 탑을 건립할 당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서체는 중국에서 7세기 초에서 중반에 걸쳐 사용된 북조체로 추정된다. 특히 명문 가운데 “北”자의 표현이 매우 특이한데 이러한 글씨체는 7세기 백제 쌍북리 요지에서 출토된 “北舍銘” 토기의 “北”자와 매우 유사하다(도 9). 따라서 단편적인 자료지만 탑상문전에 새겨진 서체는 불상의 양식과 더불어 1 유형의 제작시기를 7세기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도 9 ‘北舍銘’ 토기, 백제,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1999, p. 157, 도 289
전제)

그리고 탑상문전 1유형이 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불상의 수인에서도 확인된다. 수인은 선정인, 전법륜인, 설법인, 왼손



도 10 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 통일신라, 8세기, 김천 갈항사지(『문화재대관』 5,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6, p. 92, 도 31 전제).



도 11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삼존불좌상 본존, 통일신라, 경주 남산(『경주 남산』,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02, p. 100, 도 108 전제)

항마촉지인 등이 보인다(삽도 3 참조). 이러한 수인은 중국의 경우 초당대에 해당하는 7세기 중반 이후, 새롭게 제작되고 유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세기 후반경 나타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양지의 활동 시기를 종합해 볼 때, 탑상문전 I유형의 제작시기는 7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음은 탑상문전 II유형이다(도 1). II유형은 사실적인 조각수법에서는 I유형과 동일하지만 불상의 양식 및 전답이 아닌 석탑과 조합을 이룬 탑의 형식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불상은 원형의 두광과 폭이 넓고 큰 신광으로 이루어졌다. 육계는 낮고 편평하며, 얼굴은 살이 오른 방향의 형태이다. 상체의 비율은 짧고 높은 무릎은 둔중하며 통견식 착의법과 공수를 취한 수인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8세기 중반 이후에 보이는 불상의 특징으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도 10).

폭이 넓어지면서 둥근 형태의 신광 역시 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특징으로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마애삼존불 본존상의 광배에서 볼 수 있다(도 11). 이는 7세기 불상의 경우 대부분 보주형의 두광만이 나타나며 신광이 거의 표현되지 않는 점과 비교된다. 신광이 표현된 예외적인 작품이 7세기 백제 작품으로 알려진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금동일광삼존불좌상(小倉 수집품)인데 좁고 긴 신광의 모습에서 8세기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¹¹ 이는

앞서 살펴본 석장사지 I유형에서도 확인된다.

수인은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수는 불상 광배의 화불과 불상이 결합하는 수인의 형식 중 하나이다. 화불에 표현된 공수는 6세기, 불상의 경우는 7세기부터 나타나며 특히 광배 화불에 보이는 공수는 9세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¹² 탑 부재인 탑상문전에 표현된 불상의 경우 7세기 인왕동 탑상문전과, 8세기의 중산리사지 탑상문전, 청도 불령사 전탑의 탑상문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수가 일반적으로 7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장사지 I유형의 탑상문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인의 불상은 오히려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탑은 안상이 시문된 단층기단을 가진 삼층석탑으로, 정교하게 표현된 상륜부가 특징이다. 방형의 노반 위에 보륜과 보개, 수련, 용차, 보주 등이 매우 확연하다. 석탑 기단에 안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빨라도 8세기 중반 이후이며 9세기 석탑에서 주로 보인다. 그리고 상륜부의 보개 역시 9세기 이후의 탑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실례로 7세기 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의 북쪽 탑 그리고 8세기 나원리 오층석탑 내 사리장엄구 중 금동삼층소탑 등에서는 보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 역시 法隆寺 오층목탑을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 탑 상륜에 보개가 거의 보이지 않아 최소한 8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는 석탑 상륜에 보개가 표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현재 석탑에서 보개가 나타나는 가장 이른 사례는 흥덕왕 3년(828)에 창건된 실상사 동서 삼층석탑으로 당시의 상륜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중요한 작품이다(도 12).

마지막은 II유형의 탑상문전 두께로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후대의 보수 가능성을 추정

¹¹ 금동일광삼존불좌상은 광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예경, 2000), p. 48, 도판 11과 이호관,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불상』(학연문화사, 2003), p. 24, 도판 10 참조.

¹² 삼국시대 공수를 취하는 화불의 가장 이른 사례는 '景四年銘'(571) 금동삼존불상 광배에 보이는 화불이 있으며 이외 7세기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광배,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8-9세기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영주 부석사 북지리 석조여래좌상(東佛) 광배의 화불 등이 있다('景四年銘'(571) 금동삼존불상과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황수영 편저, 『국보』 2 금동불·마애불(예경산업사, 1984), p. 17, 도판 6과 p. 134, 도판 130 참조,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문화재대관』 5 보물 3(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3), p. 52, 도판 3 참조,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최성은, 『KOREAN Art Book』 석불·마애불(예경, 2004), p. 49, 도판 49, 영주 부석사 북지리 석조여래좌상(東佛)은 『문화재대관』 5 보물 3(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3), p. 88, 도판 29 참조).

불상의 경우 7세기 김제 대목리에서 출토된 동관삼존불들과 경주 남산 탑곡마애불상군의 불상이 대표적이다(동관삼존불들은 광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예경, 2000), p. 136, 도판 40, 경주 남산 탑곡마애불상군의 경우 황수영 편저, 『국보』 2 금동불·마애불(예경산업사, 1984), p. 121, 도판 118 참조).

¹³ 양윤식, 「미술사적 조사연구—소탑」,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 59, 각주 56 재인용.



도 12 실상사 삼층석탑, 9세기 전반(828년),
남원 실상사



도 13 전불상, 唐, 日本 개인 소장
(『東アジアの佛たち』, 奈良國立博物館,
1996, p. 102, 도 104 전제)

해 볼 수 있다. II유형의 탑상문전 두께는 모두 8.0-9.0cm로 동일하다. 이에 반해 I유형 탑상문전의 두께는 5.0-8.0cm가 대부분으로 8.0-9.0cm 두께의 전만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이를 전탑으로 쌓는다면 8.0-9.0cm의 탑상문전은 하단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II유형의 탑상문전은 부분적으로 후대에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상에서 불상과 석탑의 형식 및 양식 그리고 전의 두께 등에 대해 그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작시기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II유형의 탑상문전은 8세기 중반-9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유형에 나타나는 불상과 탑의 표현은 위낙 양식적으로 독특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 시기를 비정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삼도 3 참조). 다만 그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형의 두광과 신광은 한 조의 선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냈으며 간략하게 그 형체만 표현된 불상은 양감이 매우 뛰어나다. 수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선정인, 전법륜인, 왼손 항마촉지인, 설법인, 공수 5가지로 I유형의 수인을 수용하면서 그 수가 줄어들었다. 간략화한 조각기법의 비슷한 예는 일본의 善業泥像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탑에 보개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상한 연대는 II유형과 같은 8세기 중반-9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도 13). 굳이 II유형과의 선후관계를 유추하자면 수법이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점, 보개가 표현된 탑

이 발견되는 점, 전의 두께가 5.0-9.0cm까지 모두 나타나는 것 등으로 보아 II유형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된 듯하다. 하지만 III유형의 제작시기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의 발견이 요구되며 차후 다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천부상전편

필자가 확인한 천부상전편은 총 28점이다. 모두 편으로 발견되어 도상 확인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탑을 든 사천왕상, 금강역상의 머리와 발, 불자로 보이는 유물 등이 있어 제석천과 범천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악귀 다리를 통해 생령좌의 신장상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양식적 특징에서도 시기가 다른 요소들이 간취되는데 대표적 유물 두 점을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博片들 중 가슴부분만 남아 있지만 오른손에 탑을 들고 있어 사천왕 가운데 북방 다문천으로 판단되는 전편을 살펴보겠다(도 4).¹⁴ 전체적으로 반부조이지만 팔은 환조상에 비견될 정도의 고부조를 보이고 있다. 가슴에 胸甲을 착용하였고, 그 위에 肩布를 들렀는데 이는 肩當과는 다르다. 팔소매는 半袖이며, 腕當으로 팔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천왕상전의 가장 큰 특징은 견포의 착용으로 6세기-7세기 중반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천왕상 혹은 신장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특히, 견포는 가슴 밑으로 느슨하게 묶는 방식인데 이는 목에 묶는 것보다 고식적인 요소이다.

같은 형식의 견포가 645년 황룡사 사리외함의 신장상과 650년경 일본 법룡사 금당 내 사천왕상 네 구에서 확인된다(도 14). 그리고 6세기 중국 남조대에 제작된 萬佛寺址 출토 천왕상에서도 나타난다.¹⁵ 전술한 상들은 모두 견포와 함께 도포식 옷자락과 긴 치마를 입은 단순한 형태의 서역식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682년 감은사지 사리외함에 표현된 사천왕상은 이와 달리 따로 제작된 중국



도 14 사천왕상, 일본, 650년경,
일본 法隆寺 소장(『日本の美術』4, no.
455, 至文堂, 2004, p. 7, 도 7 전제)

¹⁴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 고찰」, 『문화사학』 25(2006), pp. 99-109.

¹⁵ 『中國國寶展』(朝日新聞社, 2004), p. 118, 도판 88 참조.



도 15 석장사지 천부상전편(금강역사상), 8세기 중반 이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 소장(사진 제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식 갑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679년 경주 사천왕사지 신장상에서는 서역식 갑옷과 중국식 갑옷의 착용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식 갑옷이 652년 서안 자은사 대안탑 大唐三藏聖教序碑의 사천왕상을 비롯하여 661-663년에 개착된 중국 용문 석굴 경선사동 북벽 천왕상 등 7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사천왕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중국의 경우, 사천왕상이 입은 갑옷은 650년경을 전후하여 견포를 두른 서역식 갑옷에서 견갑, 흉갑, 반수, 완당 등의 중국식 갑옷으로 착용하는 변화양상을 띤다. 신라에서도 7세기 후반부터 사천왕상의 갑옷 형식이 서역식에서 중국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즉 679년 사천왕사지 신장상전편의 갑옷에서는 고식과 신식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반면 682년 감은사지 사리의합에서는 완전한 초당의 중국식 갑옷을 착용한 사천왕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견포의 고식 요소와 반수와 완당을 착용하는 신식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석장사지 사천왕상전편의 제작시기는 사천왕사지 신장상과 비슷한 시기인 7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사천왕사지 신장상전편은 양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석장사지 전탑 출토 사천왕편과의 관련성은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금강역사상은 현재 발부분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고찰은 불가능하다(도 15). 다만 발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로 치켜 올려 힘을 준 발의 표현은 매우 주목된다. 7세기 대표적 작품인 분황사 모전석탑(634)의 금강역사상과 7세기로 추정되는 분황사 동방 폐탑지의 금강역사상은 두 발에 힘을 주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¹⁶ 하지만 8세기 석굴암 금강역사상에서 엄지발가락만을 치켜 올리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며, 755년 백지대방광불

¹⁶ 분황사 동방 폐탑지 금강역사상의 제작시기는 장충식은 분황사 금강역사상(634)과 전후하는 시기로 유추하였으며, 문명대는 분황사 금강역사상(634)보다는 1/4분기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백남주는 분황사 금강역사상을 잇는 상이라 하였다. 최근 김은화는 8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장충식, 앞의 책, pp. 102-103; 문명대, 「한국 탑부조(조각)상의 연구(1)-신라인왕상(금강역사상)고」, 『불교미술』 4(동국대학교 박물관, 1979), p. 92;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78; 김은화, 「경주 구황동폐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33(고구려발해학회, 2009), p. 174).



도 16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금강역사상의 발 1, 8세기 중반 이후, 경주 장항리사지



도 17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금강역사상의 발 2, 8세기 중반 이후, 경주 장항리사지

화엄경변상도(이하 화엄경변상도) 역시 잔편이지만 발가락 다섯 개에 힘을 주어 치켜 세운 동세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석굴암의 사천왕상 중 광목천에서도 나타난다. 8세기 중반 장항리사지 금강역사상에서는 화엄경변상도와 석굴암 사천왕상의 발의 모습이 나타남은 물론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발을 곧추세워 발꿈치만을 땅에 댄 모습도 나타난다(도16, 17).¹⁷ 이 자세는 8세기 중반 이전의 금강역사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9세기 이후 금강역사상에서 정형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시기의 금강역사상 발 모습의 형식이 같아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금강역사상의 자세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신장상에 표현된 발의 동작을 통해 볼 때 석장사지 출토 금강역사상전편의 제작 시기는 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천부상전편 또한 7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과 8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¹⁷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은 일반적으로 그 조성시기가 8세기 전반 혹은 초로 보고 있으나 금강역사상의 천의를 밟고 있는 모습과 발의 동세, 균의 형태 등의 양식적 특징이 석굴암 조각을 잇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754년에서 755년 제작의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에서 역사상의 발의 모습 그리고 연화좌에 시립한 모습 등을 종합해 볼 때 석탑의 결구구조는 8세기 전반의 특징을 따르나 조각이 8세기 중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8세기 중반 이후로 그 시기를 비정하였다. 지면의 부족으로 상세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이후 다른 기회를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3. 연기법송명탑상문전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상단부와 하단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은 다섯 구씩 2열로 배치한 불상을, 하단에는 다섯 기씩 2열로 배치한 탑으로 구성되었다(도 3). 탑과 탑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연기법송이 새겨져 있어 매우 흥미롭다.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탑 내 법사리로 봉안되었던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¹⁸ 하지만 글자가 좌우로 뒤집어져 있고 음각이라는 점 등에서 종이나 비단에 찍기 위한 틀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유물은 지금까지 탑 창건 당시 양지와 관련된 유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여러 경전에 수록된 연기법송을 확인한 결과 석장사지 유물과 같이 ‘諸法從緣起’로 시작하여 ‘是大沙門說’로 끝나는 연기법송은 691년의『南海寄歸內法傳』과 710년『浴佛功德經』, 700년-713년『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出家事』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의정이 저술 및 번역하였다(표 2 참조). 연기법송은 의정의 저술 중 특히 『남해기귀내법전』과 관련하여 알려졌다.¹⁹ 그렇다면 연기법송이 신라에 유입된 상한은 빨라야 691년 이후가 된다. 하지만 『남해

표 2 緣起法頌 관련 경전

연번	경전명	원문	저자 (번역자)	시기 (번역시기)	비고
1	사분율 (T.1426)	…… 廣演其義今當略說其要優波提舍言我唯樂聞爲要不在廣略阿濕卑言汝欲知之 如來說因緣生法 亦說因緣滅法 若法所因生 如來說是因 若法所因滅 大沙門亦說此義此是我師說時優波提舍聞已即時諸塵 ……	달마굽다	석가 사후 100년경	
2	대지도론 (T.0549)	…… 當知已說餘門如佛於四諦中或說一諦或二或三如馬星比丘爲舍利弗說偈諸法從緣生 是法緣及盡我師大聖王 是義如是說此偈但說三諦當知道諦已在中不相離故譬如一人犯事學家受罪如 …… 廣說如來義舍利弗言略說其要爾時阿說示比丘說此偈言諸法因緣生 是法說因緣 是法因緣盡 大師如是說舍利弗聞此偈已即得初道還報目連目連見其顏色和悅迎謂之言汝 ……	용수 (구마라습)	2-3세기 (402-405)	인도 사르나트 다멕스투파 연기법송
3	〈출요경〉 경율이상 (T.2121)	…… 汝師教授法答曰我年既幼稚學日又初淺豈能直至真如來廣大義又曰略說其要答曰諸法因緣生 是法因緣滅 舍利弗即得初道(出曜經云得無著果)還爲目連說亦得初道二師爲各與二 ……	(축불염)	(398-399)	

¹⁸ 장충식, 앞의 논문, p. 95.

¹⁹ 장충식, 앞의 책, p. 55 석장사지의 연기법송이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에도 기록된 인도에서의 불사리 장엄법식이라 하였다.

4	미사색부화혜오 분을(T.1421)	…… 宣師廣大之義今當爲汝略說其要 我師所說 法從緣生 亦從緣滅 一切諸法空無有主優波提舍聞已心悟意解得法眼淨便還所住爲拘律陀……	(불타집, 축도생 외)	(423-424)	
5	대법거다라니경 (T.1340)	…… 成就者亦無見者如是摩那婆如來不說定有衆生亦復不說定無衆生如來惟說一切諸法從 因緣生從因緣滅 云何諸法因緣生滅所謂因彼故有此彼生已此生彼無故此無彼滅已此滅若一切法從緣生……	(사나굴다)	(6세기 말)	
6	범원주립 (T.2121)	…… 〈與彼世尊威德別 於是舍利弗復聞說偈云 諸法因緣生 亦從因緣滅 吾師大沙門 常說如是 法舍利 〉……	도세	668년	
7	불설조담공덕경 (T.0699)	…… 世尊. 如向所說. 安置舍利及以法藏. 我已受持. 不審如來四句之義. 唯願爲我分別演說. 爾時世尊說是 偈言 諸法因緣生 我說是因緣 因緣盡故滅 我作如是說 善男子. 如是偈義名佛法身. 汝當書寫置彼塔內. 何以故. 一切因緣及所生法性空寂故. 是故我說名爲法身……	(지파가라)	(680년)	당 선업니 중 일부 연기법송
8	금강삼매경론 (T.1730)	…… 是諸緣起法 是法緣不生 因緣生滅无 生滅性空寂 緣性能所緣 是緣本緣起 故法起非緣 緣无起亦爾 因緣所生法 是法是因緣 因緣生滅相 彼即无生滅 論曰此下第二廣宣於中有二是前三頌廣不動義其後二頌宣得入義初中亦二謂前二頌推本无得以顯不動後之一頌……	원효	686년	
9	남해기귀내법전 (T.2125)	…… 造泥制底及拓摸泥像. 或印絹紙隨處供養. 或積爲聚以塼裏之即成佛塔. 或置空野任其銷散西方法俗莫不以此爲業. 又復凡造形像及以制底. 金銀銅鐵泥漆[專*瓦]石. 或聚沙雪. 當作之時中安二種舍利. 一謂大師身骨. 二謂緣起法頌. 其頌曰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要安此二. 福乃弘多. 由是經中廣爲譬喻. ……	의정	691년	경주 석장사지 연기법송, 보원사지 연기법송
10	대승집보살학론 (T.1686)	…… 一切希有菩薩行結集所有諸功德自他當獲福無窮 皆作文殊眞佛子書寫此正法 我所有微善 爲愍有情故 令增長勝惠 諸法從緣生 緣謝法即滅 我師大沙門 常作如是說 大乘集菩薩學論……	산티데바	7-8세기	
11	육불공덕경 (T.0698)	…… 諸佛世尊具有三身. 謂法身受用身化身. 我涅槃後. 若欲供養此三身者. 當供養舍利. 然有二種. 一者身骨舍利二者法頌舍利. 即說頌曰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若男子女人苾芻五衆應造佛像. 若無力者下至大如[麩-橫]麥. 造窄睹波形如棗許. 刹竿如針. 蓋如麩片. 舍利如芥子. 或寫法頌安置其中……	(의정)	(710년)	경주 석장사지 연기법송, 보원사지 연기법송
12	근본설일체유부 비니아출가사 (T.1444)	…… 來教法甚深微妙難解難知我近出家不能廣說然我今者不能記文略說其義底沙告曰願說其義爾時馬勝便以伽他而告之曰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說是頌已時鄔波底沙即便離垢證得法眼法中之眼得見法已心無疑……	(의정)	(700-713)	경주 석장사지 연기법송, 보원사지 연기법송

기귀내법전』이 기행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정 또한 695년에 중국으로 돌아온 점, 법사리 장엄을 행할 때 기행문보다 경전에 근거했을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이 연기법송은 8세기 초의 『육불공덕경』 혹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에 기록된 연기법송에 의거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8세기 초라는 상한연대는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양지스님의 활동시기와는 거리가 있다.

연기법송명탑상문전에 새겨진 불상은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고 공수를 취하며 단판 복련의 연화대좌에 앉아 있다. 이러한 불상 형식은 8세기로 편년되는 울산 중산리사지 출토 탑상문전, 청도 불령사 전탑의 탑상문전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²⁰ 불상의 머리 위에 표현된 천개 역시 우산 형태로 7세기 신라시대 유행하던 방향의 천개와는 달리 8세기의 천개 양식을 보인다.

탑은 방향의 단층탑으로 이와 유사한 형식은 8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굴암 내 천불천탑으로, 하단부가 결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대석과 함께 비례상 단층탑일 가능성이 크다.²¹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양지가 처음 탑을 조성할 당시 봉안한 유물이 아니라 8세기 이후 어느 시기에 추가된 유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전불의 제작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최소 두 시기 이상의 유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유물로 이는 양지와 관련하여 창건기 전탑의 부재로 추정된다. I유형 탑상문전과 천부상 전편 중 사천왕상전을 포함한 전편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8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II·III 유형의 탑상문전, 천부상 전편 중 금강역사상을 포함한 전편, 연기법송명탑상문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물들 중 II유형 탑상문전은 전의 두께가 8.0-9.0cm에 해당하는 크기만 발견되어 창건기 전탑을 보수할 때 교체된 유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때 금강역사상을 포함한 전편들과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이 함께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II유형 탑상문전의 상한 시기 역시 8세기 중반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전의 두께가 5.0-9.0cm까지 모두 발견되었고 I·II 유형의 탑상문전과는 다른 조각수법과 양식을 보인다. 따라서 II유형과의 선후관계를 언급하자면 이보다는 뒤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²⁰ 『래여에반다라』(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p. 67, 도판 62, p. 69, 도판 67 참조.

²¹ 강우방, 「신양지론—양지의 활동기와 작품세계」, 『미술자료』 47(국립중앙박물관, 1991), p. 18(『법공과 장엄』 [열화당, 2000], pp. 147-163 재수록). 연기법송명탑상문전편의 탑의 형태가 통일 초에 나타나지 않는 통일 중기 이후의 형식이므로 양지작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연기법송의 左書陰刻이 고려시대 자주 나타나는 후기 형식이라 하였다.

IV. 탑상문전의 형식과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의 연원

석장사지 탑상문전의 특징은 탑, 불상, 탑, 불상 등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점이다. 이러한 조합의 장엄 방식은 흔히 나타나지 않는 구성이지만 인도의 경우 기원전 1-2세기에 조성된 산치대탑의 문 상단에 표현된 보리수와 탑의 배열, 5세기 추정 아잔타 석굴 천정 벽화의 탑 불상 배열, 아마라바티에서 출토된 부조상에서의 배열, 사르나트 유적군 등 인도에서는 여러 시기에 걸쳐 흔히 나타나는 장엄 방식이다.²²

인도에서는 흙으로 만든 탑 안에 연기법송을 법사리로 한 진흙 봉헌판을 봉안하는 법식이 있어 주목된다.²³ 6-7세기경에 조성된 사르나트 다벡 스투파에서는 1835년 발굴 당시 『大智度論』에 수록된 연기법송을 새긴 봉헌판이 탑 상부에서 발견되었다(표 2 참조).²⁴ 탑 내에 연기법송을 새긴 진흙 봉헌판을 봉안하는 의식은 인도에서는 6, 7세기 이후 유행하였던 보편적인 의식이었다.²⁵ 특히 불상과 탑이 함께 배열된 인도의 조상들은 대부분 연기법송을 공반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 흥미롭다. 비록 후대의 작품이지만 봉헌판의 불상 좌우에 탑이 있고 그 밑에 연기법송이 새겨진 예도 있으며, 또 다른 불교조각에서도 역시 불상과 탑 그리고 불상 광배의 윤곽을 따라 연기법송을 새긴 사례도 볼 수 있다(도 18, 19).

연기법송을 통한 장엄법식은 7세기 중엽, 인도에서 당으로 귀국한 구법승들의 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현장의 『大唐西域記』와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미 이전부터 유행하였던 형식임이 확인된다. 『대당서역기』는 인도 법식에 대해 ‘향가루로 진흙을 만들어, 작은 탑을 만들고, 법사리라 일컫는 경문을 써서 탑 내 봉안한다’라고 적었다.²⁶ 『남해기귀내법전』에서는 ‘흙으로, 탑과 불상을 만들고, 탑 안에 두 종류의 사리를 안치하는데, 하나는 大師身骨이고, 또 다른 하나는 緣起法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표 2 참조). 불상과 탑, 연기법송을 기재한 형식의 인도식 장엄

22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국립중앙박물관, 2006), p. 31, 도판 18 및 島田 明, 「アーンドラ美術館の佛像像-浮彫像に見るその成立と展開」, 『佛教藝術』 249(毎日新聞社, 2000), p. 34, 도판 28 참조.

23 주경미,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제2집(2004), p. 189.

24 村元, 김지건 옮김, 『佛陀의 세계』(김영사, 2005), p. 212.

25 本啓祥, 「碑銘に見られるインドと佛教の展開の背景」, 『한국불교학』 27(2000. 12), p. 59.

26 『大唐西域記』 卷9(大正藏 51卷 p. 920a)

…… 印度之法香末爲泥 作小窣堵波高五六寸 書寫經文以置其中 謂之法舍利也. ……



도 18 봉헌판, 인도, 10세기, 인도국립박물관 소장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p. 133, 도 30 전제)

도 19 불좌상, 인도, 11세기, 인도국립박물관 소장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p. 104, 도 20 전제).



도 20 선업니불상, 중국, 唐, (賈麥明, 「唐長安城佛寺與西安出土的唐泥佛像」, 『故宮文物月刊』 no. 124 第十一卷 第四期, 1993, p. 79, 도 10 전제)

법식은 당시 인도를 여행했던 구법승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에서 귀국한 현장이 652년 발원하여 653년에 조성한 장안 대자은사 대안탑지 일대에서 출토된 다량의 전불이다(도 20).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의 좌우상단 혹은 하단에 탑을 배치하면서, 역시 연기법송을 새겨 인도의 장엄법식을 따르고 있다. 대안탑 일대 주변에서 발견된 이 불상들은 배면에 '印度佛像'이란 명문도 보여 '인도불상'이란 명칭과 더불어 인도의 법사리 장엄방식의 유입과정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석장사지 전불과의 비교에서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석장사지 탑상문전의 불상과 탑이 조합되

는 형식은 앞서 살펴본 인도의 장엄 방식과 비교되며, 대안탐 일대에서 출토된 전불의 형식 중에서도 탑과 불상이 함께 조성된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연기법송을 동반하고 있다. 물론 이 유물에서 보이는 연기법송은 석장사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으로 이해된다.²⁷

석장사지의 연기법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정의 저술에 근거하여 8세기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6세기 이후 인도와 중국의 불상과 탑이 조합되는 조상이 연기법송이라는 법사리 봉안법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창건 당시 석장사 전탑에도 별도의 연기법송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연기법송을 납입하는 신라의 법사리 봉안은 872년 황룡사 구층탑의 ‘諸法因緣生’을 새긴 연기법송명은판과 10세기 보원사지 출토 금동방형사리합 저부에 새겨진 연기법송으로 지속되어 고려 초까지 계승된다.²⁸

이외 특기할 점은 중국 대안탐 일대에서 출토된 전불 중에는 배면에 ‘印度佛像’ 외에 ‘大唐善業泥壓得眞如妙色身’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작품들이다. 이로 인해 대자은사에서 출토된 전불을 “善業泥佛像”이라 칭하기도 한다. 선업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승려들이 입적하여 화장하고 난 뒤 뼈를 갈아 진흙과 함께 만든 불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업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경전적 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두 선행 연구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²⁹ 선업니가 고승의 유골을 섞은 흙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 기존의 해석은 『남해기귀내법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탑상을 만들고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리를 봉안하는데 하나는 大師의 身骨이고 하나는 緣起法頌이다’라는 내용에서 대사신골이란 석가의 사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고승으로 잘못 이해한 오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업니는 글자 그대로 ‘선업의 진흙’, 또는 ‘선업을 닦기 위한 진흙’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선업니 불상을 제작하여 봉안하는

²⁷ 중국 대자은사 일대에서 출토된 전불에 새겨진 연기법송은 “諸法從緣生 如來說是因 諸法從緣滅 大沙門所設”이다(배진달, 『당대 불교 조각』[일지사, 2003], p. 225, 각주 48 참조).

²⁸ 『불사리장엄』(국립중앙박물관, 1991), p. 184, 도판 33과 도판 31 및 안 폰테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합」, 『미술자료』 47(국립중앙박물관, 1991), p. 97, 도판 7 참조.

²⁹ 陳直, 「唐代三泥佛像」, 『文物』第十二期 總112号(文物出版社, 1959. 12), p. 51. 이 외 선업니를 연구한 논문과 언급한 책은 夏美訓, 「善業泥佛像」, 『歷史文物與藝術』(臺北: 國立歷史博物館, 1984); 肥田路美, 「唐蘇常侍所造の印度佛像について」, 『美術史研究』 22(1984); 賈麥明, 「唐長安城佛寺與西安出土的唐泥佛像」, 『故宮文物月刊』第十一卷 第四期 no. 124(1993); 萩原哉, 「玄奘發願“十俱胝像”考」, 『考古與文物』 n.1 第6期(2003. 1); 김리나,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7); _____, 『韓國古代佛教彫刻比較研究』(문예출판사, 2003); 배진달, 앞의 책;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등이 있다.

것은, 곧 공양자들이 선업을 닦는 공덕의 의미를 담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三國遺事』 권제4 義解 第5 良志使錫條 기록에 양지가 영묘사 장륙삼존상을 만들 때 도성의 남녀 백성들이 흠을 나르며 불렀다는 향가와 관련이 있어 흥미롭다. ‘오다 오다 오다 / 오다 슬픔 많아라 / 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 / 공덕 닦으러 오다.’³⁰라는 향가의 내용은 공덕을 쌓는 행위를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풍요를 부름과 동시에, 불상의 재료인 진흙을 나르는 행위는 일면 대안탑 주변에서 발견된 선업을 닦는 소조불상인 선업니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지가 석장사 전탑을 조성할 당시 신라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법사리 장엄방식 뿐만 아니라 공덕을 닦는 풍속 또한 유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전불에 대해 제작시기를 비롯하여 그 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이제까지 양지의 활동시기와 맞추어 7세기 유물로 알려져 왔던 석장사지 전불은 최소 두 시기 이상의 유물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탑상문전 중 I유형에 조상된 불상은 신체의 양감과 비례, 수인의 모습 등에서 7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 새롭게 유입되었던 인도식 불상 양식이 간취되었다. 또한 7세기 후반 일본에서 나타나는 전불의 옷주름과도 형식에 있어 그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유형의 탑상문전 상면 혹은 하면에 새겨진 글자체가 7세기대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I유형의 탑상문전은 7세기 후반경 조성되었던 것으로 유추되므로 양지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II유형의 탑상문전에 새겨진 불상은 낮고 편평한 육계와 방형의 얼굴에 짧은 상체, 둔중하고 높은 하체 그리고 폭이 넓고 큰 원형의 광배, 공수를 취한 수인 등이 특징인데 이는 8세기 중반 이후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함께 배열된 탑의 경우에도 기단의 안상과 상륜부의 보개 표현 등으로 미루어 8세기 중반-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III유형의 탑상문전은 워낙 독특하여 양식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I유형의 수인을 수용하면서 수법이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점, 명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唐대 제작된 선업니상의 조각수법과 일부 비교가 가능한 점, 마지막으로

³⁰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良志使錫 ……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來來如……

보개가 표현된 탑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제작된 상한연대를 8세기 중반-9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전의 두께가 5.0-9.0cm까지 모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II유형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천부상전편 역시 시기가 다른 유물들이 혼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천왕상전편의 경우 갑옷의 형식과 견포를 통해 古式과 新式의 갑옷 형태가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지의 작품인 사천왕사지 발견 채유신장상전에서도 보이는 점으로 7세기 후반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표현된 금강역사상의 발은 8세기 중반 이후 조각된 금강역사상의 발의 특징과 유사한 점에서 상한연대를 8세기 중반으로 두었다.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7세기 중반까지 경전에서 보이던 다양한 연기법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91년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을 비롯한 의정이 찬술하고 역출한 경전에서 보이는 연기법송을 따라 刻字하였다. 기행문적인 『남해기귀내법전』보다 8세기 초 번역한 『육불공덕경』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탑상문전에 표현된 불상과 탑의 배열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식은 인도에서 고대부터 유행한 장엄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7세기 후반 인도를 다녀온 당의 구법승들을 통해 '印度佛像'이라는 명칭과 함께 '善業泥'라는 전불의 변형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더불어 탑과 함께 불상을 표현한 선업니 불상은 공통적으로 하단부에 연기법송을 새기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석장사지 탑의 모습과 그 탑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唐代 인도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불사리 장엄법식이 다시 신라로 유입되면서 신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탑상문전 중 I유형에 새겨진 불상에서 간취되는 사실적인 초당 양식과 인도식 불상 양식은 석장사지 전불이 장안 대자은사 대안탑지 일대에서 발견된 선업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__ 석장사지(SukJang temple nrns), 양지(YangJi), 선업니(Seoneomni), 연기법송(Yeongibeop odes), 탑상문전(Bricks with Buddha and pagoda motifs)

참고문헌

사료

- 『三國遺事』
『三國史記』
『大正新修大藏經』

단행본

- 강우망,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곽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 예경, 2000.
光森正士, 岡田 健, 『佛像彫刻の鑑賞基礎知識』, 至文堂, 1999.
김리나,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_____, 『韓國古代佛教彫刻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문명대, 『원음과 적조미: 통일신라불교조각사 연구(下)』, 예경, 2003.
배진달, 『당대 불교조각』, 일지사, 2003.
_____,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松原三郎, 『중국불교조각사연구』, 吉川弘文館, 1966.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국립중앙박물관, 2006.
장충식,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_____, 『한국 불교미술 연구』, 2004.
中村元, 김지건 옮김, 『佛陀의 世界』, 김영사, 2005.
최성은, 『KOREAN Art Book』 석불 · 마애불, 예경, 2004.

도록 및 보고서

-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慶州南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 II—서남산 사지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77.
『國寶』 2, 예경산업사, 1984.
『東アジアの佛たち』, 奈良國立博物館, 1996.

『래여애반다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문화재대관』 5,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6.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1999.

『錫杖寺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이호관,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3.

『인도의 불교미술』,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中國國寶展』, 朝日新聞社, 2004.

논문 및 학술지

강우방, 「신앙지론—양지의 활동기와 작품세계」, 『미술자료』 47, 1991, pp. 1-26.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 고찰」, 『문화사학』 25, 2006, pp. 99-109.

김은화, 「경주 구황동폐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33, 고구려발해학회, 2009, pp. 157-180.

문명대, 「양지와 그의 작품론」, 『불교미술』 1, 1973, pp. 1-24.

_____, 「한국답부조(조각)상의 연구(1)—신라인왕상(금강역사상)고」, 『불교미술』 4,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9, pp. 37-103.

_____, 「신라 대조각장 양지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미술사학연구』 232, 2001, pp. 5-20.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88.

신종원, 「삼국유사 양지사석조 주석」, 『고문화』 40 · 41, 1992, pp. 81-94.

장충식, 「석장사지 출토유물과 석장사지의 조각유품」, 『신라문화』 3-4, 1987, pp. 87-118.

주경미,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제2집, 2004, pp. 164-196.

賈麥明, 「唐長安城佛寺與西安出土的唐泥佛像」, 『故宮文物月刊』 no. 124 第十一 第四期, 1993, pp. 72-81.

島田明, 「ア-ンドラ美術館の佛陀像-浮彫像に見るその成立と展開」, 『佛教藝術』 249, 2000, pp. 13-48.

『日本の美術』 4 no. 455, 至文堂, 2004, pp. 1-80.

陳直, 「唐代三泥佛像」, 『文物』 第十二期 總112号, 1959. 12, pp. 49-51.

塚本啓祥, 「碑銘に見られるインドと佛教の展開の背景」, 『한국불교학』 27, 2000. 12, pp. 27-68.

萩原哉, 「玄奘發願 “十俱胝像”考」, 『考古與文物』 no. 1 第6期, 2003. 1, pp. 61-71.

국문초록

경주 석장동에 위치한 錫杖寺址는 신라의 조각승 良志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6년과 1992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 의해 2차에 걸쳐 발굴·조사되었다. 당시 발견된 조선시대 자기 굽바닥의 '錫杖'이라는 목서를 통해 『三國遺事』 권제4 義解 제5 良志使錫條에 등장하는 석장사임을 확인하였다. 기록에 양지가 조성하였다는 전탑의 부재로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塼佛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제작 시기는 지금까지 양지의 활동시기에 맞춰 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일관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탑의 특성상 석탑·목탑에 비해 내구성이 약해 탑 자체가 훼손되기 쉽고, 이후 보수될 가능성이 높아, 석장사지 전불 역시 시기의 혼재 가능성이 높다. 확인한 결과 제작 시기가 최소 두 시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불은 용도에 따라 탑상문전, 천부상전편, 연기법송명탑상문전으로 구분하였고, 탑상문전은 다시 조각된 불상과 탑의 양식 및 조각수법에 따라 I·II·III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제작 시기는 I 유형의 경우 7세기 후반, II유형은 8세기 중반-9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III유형은 워낙 독특하여 양식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간략하고 추상적인 표현 기법, 보개가 표현된 탑 등으로 상한연대를 8세기 중반 이후로 조심스레 추정하였다. 천부상전편은 모티프와 양식을 통해 7세기 후반과 8세기 중반 이후, 두 시기로 구분되었다.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刻字된 연기법송이 여러 경전에서 보이는 연기법송 중 의정이 찬술·역출한 경전의 것을 따랐음을 알 수 있었고 그중 8세기 초의 『육불공덕경』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하였다.

더불어 탑상문전에 표현된 불상과 탑의 배열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식은 인도에서 고대부터 유행한 장엄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7세기 중반 이후 인도를 다녀온 唐구법승들을 통해 '印度佛像'이라는 명칭과 함께 '善業泥'라는 전불상의 변형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특히 탑과 함께 불상을 표현한 선업니 불상은 공통적으로 하단부에 연기법송을 새겼다. 따라서 석장사지 탑의 모습과 그 탑 내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법송명탑상문전은 唐代 인도로부터 새롭게 유입되었던 불사리 장엄법식의 변형이 다시 한 번 신라로 유입되면서 신라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Abstract

Buddhist-Motif Bricks of Seokjangsa Temple in Gyeongju

Kim Jihyun*

The former site of Seokjangsa Temple, located in Seokjang-dong, Gyeongju, is a place closely linked to Yangji, the famous monk sculptor of Silla. The site was investigated under two successive excavation projects carried out by the Museum of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in 1986 and 1992. The name “Seokjang” found in the bottom of a Joseon-period porcelain dish, discovered there, written in underglaze calligraphy, provided conclusive evidence that this place was the former site of Seokjangsa, a Buddhist temple mentioned in an article of the 4th volume of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itled “Yangjisaseok.” The site further yielded a large array of bricks sculpted with Buddhist motifs, ostensibly brick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a brick pagoda said to have been built on this temple ground by Yangji. These bricks with Buddhist motifs have been mostly dated by historians to the late 7th century, corresponding to Yangji’s active years. This dating, however,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brick pagodas are generally less durable than stone or wooden pagodas and are more frequently repaired than the latter as well. The brick pagoda of Seokjangsa could have been completed through more than one construction project, and if this is the case, bricks with Buddhist motifs that were found at the former site of Seokjangsa could also date from several different periods of time. As a matter of fact, a recent investigation discovered evidence that these

* Lecturer of Art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and Donga University

bricks with sculpted Buddhist motifs were made during at least two different time periods.

Buddhist-motif brick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intended use into three categories: pagoda and Buddha-motif bricks, bricks featuring heavenly beings and pagoda-motif bricks inscribed with *yeongibeop* odes. Pagoda and Buddha-motif bricks, meanwhile, can be again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type I, II and III, according to the style of pagoda and sculptural technique. In this paper, pagoda-motif bricks of type I are tentatively dated to the late 7th century, those of type II to the mid-8th to early 9th century. Type-III bricks, highly original in style, were trickier to date than others, due to the nearly complete absence of comparable bricks. Notwithstanding, the concise and abstract visual style and the presence of a baldachin in the pagoda common to the bricks of the latter category incline me to think that they must have been made no earlier than the mid-8th century. As for those with carved images of heavenly beings, their motifs and styles suggest that some of them were made sometime after the late 7th century, and some others after the mid-8th century. As for the *Yeongibeop* odes inscribed on pagoda-motif bricks inscribed with *yeongibeop* odes, these verses were extracted from sutras translated and edited by Uijeong, and *Yokbulgongdeokgyeong* (On Bathing and Praying to a Buddha Statue) and *Genbenshuoyiqieyoubupinaiyechujiashi* (*Mūlassrīvāstivādinaya pravāṅjyāvastu*), two publications from the early 8th century, appear to have been particularly influential sources.

Meanwhile, I was also able to establish that the unusual arrangement of alternating images of Buddha statues and pagodas in pagoda and Buddha-motif bricks was inspired by a popular Indian style of enshrining sarira, dating from antiquity. This style was introduced to China in the mid-7th century, by Tang monks who traveled in India, and Buddha statues of this style were known there as “Indian Buddha statues,” which also gave rise to a brick-sculpted variant called “seoneomni.” Seoneomni sculptures featuring pagoda motifs alongside images of a Buddha statue often also had *yeongibeop* odes in the lower s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 argue that the brick pagoda of Seokjangsa Temple and the pagoda-motif bricks inscribed with *yeongibeop* odes found at the former site of the now-disappeared Buddhist temple were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a Tang-Chinese variant of the ancient Indian style of enshrining sarira, even though they were in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original Indian style, due to a second round of adaptation it underwent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which it incorporated Silla’s native aesthetic.